

# 공유주차 문화 확산으로 주차난 해소

전주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 5월 30일까지 종교시설·공동주택·학교 등 대상 참여 접수

전주시내 주요 도심지역에 설치된 공유주차장이 대폭 활용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겪었던 주차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주차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도 종교시설과 공동주택, 민간보유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주시역 주차공간은 약 45만4000여 면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수인 34만3402대와 단순 비교하면 부족하지 않은 상

황이다.

하지만 전체 주차면의 98% 정도가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이어서 건물 특성상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게 관리되고 있어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주차장 확보율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부설주차장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차면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유주차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유휴시간대 비어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일반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 절

감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까지는 무료개방 운영에 한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유료로 개방하는 부설주차장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설주차장에는 바닥포장 및 도색, 방범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비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차장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유료 개방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시간제 운영은 공유주차장 요금의 50% 범위 내, 정기권 운영은 1

면당 월 3만원 이내로 요금이 책정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주차장은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개방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공유주차 문화 확산은 현대사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로,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된다”면서 “인센티브 개발 및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등 개방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주시 지역지부 소속 6개 노동조합은 23일 전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병철 의장 등 6개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장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 전주함께장터에 따뜻한 마음 나뉘

한국노총 전주시 지역지부 소속 6개 노동조합, 기부금 전달

전주시역 노동자들이 지역 상권과 노동 취약계층을 응원하는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에 힘을 보탰다.

전주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주시 지역지부(의장 박병철) 소속 6개 노동조합은 23일 전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병철 의장 등 6개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장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NH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전북은행 노동조합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휴비스 전주공장 노동조합 △전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전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등 한국노총 소속 6개 노동조합은 총 6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시에 전달했다.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는 기업, 공공기관, 민간 단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노동자 등 지역경제의 주요 축을 지원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행복한 나눔 문화를 확산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한 릴레이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 중 ‘노동자기(氣)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노동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일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병철 한국노총 전주시 지역지부 의장은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며 의미 있는 소비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 전주국제영화제와 동행

전주 프로젝트 공식 파트너 지원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가 전주국제영화제의 공식 파트너로서 전주를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수도로 만드는 데 동행하기로 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영화 ‘아버터’와 ‘블린’ 등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의 한국 법인인 (주)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대표 피터 유)가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지난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주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로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쿠뮤 스튜디오 한국 법인 출범식.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국제영화제가 주관하는 전주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지원을 약속했다.

‘전주 프로젝트’는 전주국제영화제

가 기획·개발 단계에 있는 우수한 한국 및 국제 독립영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개발부터 제작, 해외 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산업 프로그램이다.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는 이러한 전주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로서 △전주 프로젝트 개발 기획비 후원 △전주 프로젝트 선정작 중 국내 1편, 해외 1편에 촬영 스튜디오 인프라 지원 △씨네 링크 전주 인터스트리 나잇 후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지난해 10월 전주에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1월부터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위탁운영을 시작하며 전주시와 함께 영화 산업 기

/권희성 기자

## 베트남 호치민서 ‘바이전주 우수 제품 판촉전’ 개최

전주시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전주지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개척을 돕고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베트남 호치민 청년마켓에서 열린 ‘바이전주 우수 제품 판촉전’에 베트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을 재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지 판촉전은 지난해 11월 전주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베트남으로 파견됐던 우범기 전주시장 등 전주시 경제사절단이 현지 경제기관 및 기업들과의 통상·교류를 통해 지역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기에 가능했다.

5개 바이전주 우수기업이 참여한 부스에서는 시식과 제품 체험, 현장 인터뷰 등이 이어졌으며, 유통망 ‘유스마켓’ 입점 제품들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갔다.

특히 현지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부스 앞은 종일 방문객들로 북적였으며, 시는 판촉전 직후에는 베트남 최대 로컬 마트인 ‘콰마트(CO.OP Mart)’와 베트남 내 최대 한인마트인 ‘K마켓’을 직접 찾아가 바이어와 심도 있는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콰마트, MD들과의 만남에서는 현지 소비 성향과 가격대, 베트남 내 물류 유통 구조에 대한 내용을 공



유했으며,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 최근 베트남의 트렌드에 전주 기업의 이미지가 잘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들 2개 마트의 경우 베트남 전역에 걸쳐 총출판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전주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입점과 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 우아2동 지사협, 사랑의 반찬 나눔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선)는 23일, 우아2동주민센터(동장 민웅기)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취약계층 40세대에 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종선 우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반찬 나눔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더불어 이웃 간의 교류와 물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힘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이보순 의원 대표 발의

전주시의회가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펫코노미



(Pet Economy)’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산업 발전과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 및 반려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기업 등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보순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서브시 차원을 넘어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전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항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충원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직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제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손들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